

“암환자 세심하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예수병원 새힘 암환자후원회, 정기총회... 37년간 2170명, 9억4000만원 지원

예수병원 새힘 암환자후원회 제37차 정기총회가 27일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암환자후원회 정기총회 1부 예배에서 예원교회 전세광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 말씀에 따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암환자후원회 양창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없이 예수병원 전 직원의 헌신과 후원으로 37년간 변함없이 이웃을 섬긴 귀한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암환자 후원회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암환자를 도움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힘 암환자 후원회의 37년 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암환자를 세심하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 말했다. 우리나라의 1970, 80년대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은 천행(天刑)과 같았다. 1982년에 가난 때문에 손도 쓰지 못하고 죽을 앞에 내몰린 환자의 존엄성과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예수병원 직원들의 작은 몸부림이 새힘 암환자후원회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37년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 온 새힘 암환자후원회는 암환자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암 예방 활동,



예수병원 새힘 암환자후원회 제37차 정기총회가 27일 예배실에서 열렸다.

청소년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 예수병원에서 치료받는 암환자 중 경제형편이 어려운 97명에게 암 치료비 69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170명에게 총 9억 4000만 원을 지원해 귀한 생명을 구했다. 이를 위해 예수병원 직원, 외부의 개인과 단체,

평생회원들이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고 저금통에 동전을 모은 어린이가 예수병원을 퇴직한 직원, 소꿉친구 마일리지 영수증 기증, 시골 교회 어르신들의 10여년 간 암환자를 돕기 위한 따뜻한 후원금이 계속 담지하고 있다.

/채규남기자

순창서 동계파출소,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동계파출소(소장 박흥규)에서는 영농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을 방송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전동차, 사발이 자전거 등이 많아짐에 따라 마을방송과 함께 단속, 지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성상 덤프트러이 1일 70여회 운행함에 따라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운전을 당부했으며, 운전자에게 매일 안전운전 문자 전송하고 있고, 차후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일 목감문소를 운영하여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교통시설물, 도로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임실경찰서 의경어머니회 감사의 날 행사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 26일 임실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의경어머니회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의경어머니회는 지난 1년간 임실경찰서에서 군 복무 중인 112타격대 의경들을 위하여 생일잔치 6회, 명절 위문 2회, 문화탐방 및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총 10여 차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는 동영상 시청, 기념품 전달 및 저녁 만찬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호 서장은 “의무에만 얽고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의경어머니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농협 임실군지부-임실경찰서, 합동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승계)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7일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와 합동으로 임실을 터미널 삼거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은 임실을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인근상가 및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말것을 호소하며 전화금융사기예방 안내 전단지 배부했다. 이승계 지부장은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변의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안전면 황옥열씨 장학금 기탁

진안군 안전면 중리마을 황옥열(84)씨는 27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움을 지속하지 못하는 관내 청소년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200만원을 안전면행정복지센터(면장 정종기)에 기탁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면서 1남 3녀의 자녀를 키운 황씨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꼭 하고 싶었고, 교육이 살아야 안전이 산다는 생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안전면 인재육성을 위해 오는 4월 28일에 열리는 제44회 안전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행사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정종기 면장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주신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전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정읍 황도현농협, 전 조합원에 복합비료 2포씩 전달

정읍 황도현농협은 영농비 절감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3,500여명의 조합원에게 영농에 필요한 복합비료 2포씩(7천여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옥익호 조합장은 “농협사업 이용률 제고로 조합원의 곁에 다가가는 황도현농협이 될 것이며 황도현농협을 적극 지원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종자소득제 무상공급, 농약 할인판매 등 실익사업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 노인대학 입학식... 11월까지 20여개 강좌 진행

제35회 장수군 노인대학 입학식이 27일 사회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군 노인회 최봉선 지회장, 오재영 노인대학장, 입학생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노인강령 낭독, 노인대학장 인사, 노인대학운영방침, 학생장 및 반장선출 순으로 치러졌다. 노인대학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노인문화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노래교실, 건강관리, 교양강좌 등 20여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오재영 노인대학장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노인대학에 입학하신 어르신들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면서 “노인대학을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운 배움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훈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